

- 2면 만화 / 5월 1일 노동절의 유래
- 3면 주장 / 해고금지 없는 기업지원 의미 없다
- 4면 미디어비평 / 창간 100년 조선·동아일보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5면 노동법 문답 / 5월 1일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유급휴일
- 6면 소식 / 포스코 바꾸는 노동자·시민 공동행동 활발하게 전개 중
- 7면 노동안전 칼럼 / 사업주 단체·정부, 안전 위협 조치 즉각 중단해야
- 8면 금속노조 가입하자 22 /경주지부 엠에스정밀지회지회



해시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20년 5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 1811-9509



2020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나에게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가입문의 · 무료상담 ☎ 1811-9509 www.kmwu.kr

5월 1일 노동절의 유래

미국의 5월 1일은 전통적으로 노동계약과 사무실 임대를 갱신하는 날이었는데...



1886년 그 날의 풍경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19세기 후반, 독점적으로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이 호화로운 삶을 누릴 동안



대다수의 노동자는 판잣집 방세조차 버거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렸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현실의 모순을 알려내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마침내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행진은 축제같았다고 전해진다. 미국 전역에서 30만 노동자가 모였다.



이미 8시간 노동제가 시행중인 공장에서 만든 구두를 신고,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했다.

그러나 시위가 계속되자 진압이 거세졌다. 파업중이던 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죽고



이들날 규탄 시위에서 원인모를 폭발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증거도 없이 지도부를 체포하며 무마하려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분노와 저항을 일으켰다. 연대의 움직임도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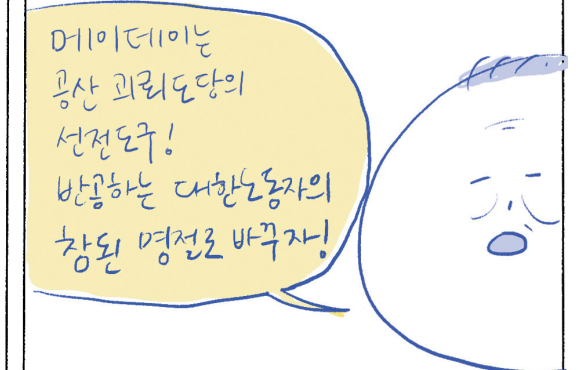
1889년 파리 국제노동자대회에서도 이 문제에 촉각을 기울여, 매년 5월 1일 세계 노동자 권리쟁취를 위한 시위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오늘날 전 세계 노동자가 기념하는 메이데이는 이런 배경 속에 자리잡았다.



한국최초 노동절행행사. 조선노동총연맹 개최. 1923

한국의 노동절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은...



라며 3월 10일 어용 대한노총(현 한국노총 전신)창립일로 노동절 날짜를 옮겼고

이름도 한바탕 고초를 겪었는데...



박정희 정권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모범 근로자를 뽑아 표창했다. 사탕발림같은 이 명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다.

노동자의 외침을 억누르려는 술한 시도 속에도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 쟁취를 위한 오랜 싸움과 희생이 있었다. 다시 5월 1일의 노동절을 맞이하는 것도 이런 토대가 있어 가능했다.



130년 전 노동자들의 외침이 여전히 무겁게 다가오는 2020년의 5월 1일.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해고금지 없는 기업지원 의미 없다

코로나 19 틈타 재벌체제 강화하려는 경총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지난 3월 23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며,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일반해고’ 가능)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 등 유연 근로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서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 ▲최저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만 반영 ▲근로시간 위반, 파견허용업무, 파견 기간 위반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등이다.

모두 재벌에게 해고와 경영의 자유를 주고, 노동자에게 경영상 피해를 감당하라고 강요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재벌이 경총과 보수언론을 앞세워 코로나 19 상황을 틈타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 무노조 경영체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4월 20일부터 코로나 19를 핑계로 해고 요건 완화를 들고나온 경총을 규탄하는 행동을 전개하며, 쉬운 해고 대신 경총의 ‘쉬운 해체’, ‘지금 당장 모든 해고 금지’를 요구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절벽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연차소진 강요로 시작된 노동자 피해 양상이 무급휴직, 휴업을 거쳐 권고사직과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항공, 관광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노동자 피해가 확대하고 있다. 재난 기간 해고금지 없는 기업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특히 간접고용,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돼 더욱더 쉽게 해고된다. 민주노총에 2~3월 접수된 상담 673건 중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상담은 153건으로 숙박음식업, 제조업 순으로 무급휴직, 휴업수당, 휴업 통보, 해고와 권고사직에 피해 유형이 집중되어 있다.

해고 막는 ‘노동백신’,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4월부터 ‘해고 막는 노동백신, 민주노총’ 이름으로 코로나 피해 노동자 제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해고 금지·충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위한 비상투쟁본부’ 체계로 개편, 경제위기 대응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핵심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 해고금지 ▲취약계층 선제, 강력한 보호 장치 확보 ▲해고금지 전제로 기업지원 ▲고용유지 지원금과 실업급여 신청요건 대폭 완화 등 정부의 강력한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우리 삶
연차소진, 휴업, 권고사직, 희망퇴직,
해고로 흔들리는 일자리
해고금지 없는 기업지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용불안으로 힘든 당신
단단한 삶, 안정된 일터를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상담 1811-9509**

뉴스판의 지뢰밭, 조선·동아일보

[미디어비평] 창간 100년을 맞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올드보이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요즘 누가 신문 읽나요?”

확실히 우리 주변에서 신문의 자취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파트 우편함마다 신문이 꽂혀있는 풍경도 이젠 사라졌습니다. 방송과 스마트폰 중심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문화 속에서 종이신문은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습니다. 세태가 이러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영향력이 예전 같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는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이 두 올드보이 신문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닥다리 신문을 누가 보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우리는 조선·동아일보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거대 신문이 쏟아내는 정보의 양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선·동아일보는 다른 일간지보다 많은 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보다 한 줄이라도 더, 한 꼭지라도 더 기사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열 종류의 전국일간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닿으면 이들 신문의 두께를 비교해 보십시오. 조선·동아일보가 다른 신문보다 월등히 두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지면을 발행하고, 그 지면을 채울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옷의 얼룩 지우는 법’ 같은 내용을 검색하면 조선·동아일보의 기사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주의해서 조선·동아일보 같은 언론을 잘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선·동아일보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종편(종합편성채널), 어린이신문, 경제전문지, IT 전문지 등 다양한 자매지가 조선·동아일보와 같은 논조의 기사를 쏟아냅니다.** 조선일보는 신문을 제외하고 19종의 자매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쏟아내는 기사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뉴스를 검색할 때 조선·동아일보를 벗어나기 쉽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비슷한 기사를 동시에 쏟아내 이것이 여론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만듭니다. 조선일보가 어느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면, 자매지와 종편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동시에 내보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주제를 검색하면 객관적으로 보도한 기사는 눈에 잘 안 보이고, 파업을 비난하는 조선·동아일보의 유사한 보도만 보이는 겁니다.

앞에서 조선일보의 지면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정보를 실을 공간이 많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고면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광고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언론사는 광고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이것이 신문의 주된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잘 보면 ‘자동차 섹션’에 신차의 장점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려있고, 몇 장 뒤에 해

당 자동차회사의 전면광고가 실려있습니다. 이런 지면 유형은 한국언론 전반의 문제입니다. 조선·동아일보에 더 많은 광고가 실리는 만큼 이런 종류의 기사가 더 많습니다. 협찬받아 평론하는 블로그의 원조 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광고 옆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때라는 기사가 실리고, 제약회

사 광고 옆에 신약 개발의 노력을 담은 기사가 실리는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조선·동아일보는 다른 언론보다 기업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고 재벌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칠 조선·동아일보가 아닙니다. 이들 신문은 아예 기사형 광고를 개발해 단가표까지 만들어 기업과 공공연하게 거래합니다. 2019년 5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조선·동아일보 등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언론사는 기사 형식으로 특정 상품이나 제품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했다”라면서 “이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작은 기사만이 아닙니다. 신문 서너 면에 걸쳐 어느 공항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으면, 독자는 심층 기사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기획한 광고입니다.

조선·동아일보가 나쁜 언론인 이유는 이들 신문이 고질적인 왜곡 보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선·동아일보는 명확한 노선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보수지이지 사실은 극우에 가까운 정치지향과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재벌을 무조건 옹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 대결 지향적이며, 사회문제에 대해 개방·포용·다양성 같은 가치를 매우 싫어합니다. 사장님에게 고분고분하고, 통일을 혐오하고, 특정 권력에 순종하는 인간을 원합니다. (5면에 계속)

일상 속 레깅스, 일상 속 스타일

일상처럼 입을 수 있는 운동복 ‘에슬레저’가 2019 트렌드 톱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슬레저는 운동복을 뜻하는 ‘에슬레틱(athletic)’과 여가를 뜻하는 ‘레저(leisure)’를 합친 단어다. 즉, 고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스포츠웨어에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적용한 옷차림을 말한다. 이러한 에슬레저 룩은 운동복과 일상복으로 입어도 어색하지 않아 남녀노소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레깅스는 몸에 딱 붙는 우수한 신축성으로 활동이 편하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네파 레깅스, 체형 결점 보완에 효과적

이번 시즌 내파는 여성들의 체형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레깅스 2종을 선보인다. 먼저 ‘세라 레깅스’는 일반 레깅스보다 허리 밴드의 높이를 높게 디자인했다. 이는 여성들이 신경 쓰는 허리 라인을 잡아줘 복부 체형을 커버하는 데 효과적이다. ‘키즈 레깅스’는 치마와 레깅스가 세트 구성인 치마레깅스다. 레깅스만 입었을 때 엉덩이와 다리 라인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제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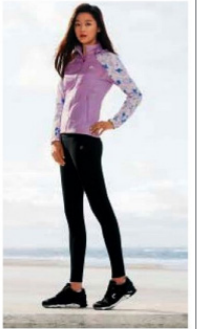
◆컬츠 힐라, 모던하고 소프트한 컬러 제안

힐라는 ‘2019 스프링 퍼포먼스 컬렉션’에서 여성들을 위한 ‘컬츠 힐라(GIRLS FILA)’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레깅스, 반팔 티셔츠, 바람막이 등 에슬레저 룩을 연출하는 데 알맞은 아이템들로 구성했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컬러 구성이다. 기본 화이트와 블랙, 소프트한 라이트 블루와 바닐라 등의 감각적인 컬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매치하기에 수월하며 세련된 연출도 가능하다.

◆아이디, 경쾌한 스포티 룩 완성

아이디의 ‘로렐 레깅스’는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인상적이다. 레깅스 옆선에 매쉬 테이프를 덧대어 땀 배출이 용이하도록 통기성을 강화하면서 경쾌한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 컬러는 블랙, 다크네이비, 라이트그레이로 3가지 구성이다. ‘컬츠 레깅스’는 블랙 컬러의 무지 디자인으로 심플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 몸에 밀착되는 우수한 신축성이 특징으로 남녀용 모두 있다.

이상미 The Boutique Sports 기자



힐라-아이디-네파 레깅스 (사진 위부터)
힐라 2019 스프링 퍼포먼스 컬렉션의 여성 라인인 ‘컬츠 힐라’
아이디 모델 아이디가 입은 레깅스는 로렐 레깅스
네파 모델 전지현이 입은 레깅스는 세라 레깅스

(17-3-37)
2019년 03월 21일
030면 (기획)

朝鮮日報



아이디가 바람막이 제킷 ‘토모(TOMO)’
백팩으로 휴대가 가능한 아이디 키즈 바람막이 제킷 토모(TOMO).

아이디, 키즈 바람막이 제킷 ‘토모(TOMO)’ 체험단을 모집한다. 이번

체험단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이디 공식 블로그(eiderblog.co.kr)에 게재된 이벤트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 후 이벤트 게시물에 스크랩 URL과 함께 신청이유, 자녀의 성별, 희망 색상과 사이즈(120~150)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오는 3월 24일까지 아이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총 10명이다. 체험단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2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미 The Boutique Sports 기자

(14.0x5.9cm)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 유급휴일

[노동법 문답] 5월 1일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유급휴일

문 1 5월 1일은 모두가 당연히 쉬어야 하는 노동절(근로자의 날)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이날을 휴일로 규정해놓지 않았다면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 1 법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15조). 한국 법률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 날 법)
[시행 2016.1.27.] [법률 13901호, 2016.1.27., 전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단 한 문장, 서른다섯 글자. 현행 노동관계 법률 중 가장 짧은 법률이지만, 위력은 막강합니다. 사업장 규모나 노동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들은 법률에 따라 2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노동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임금 100%의 1.5배(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다른 규정

이 없다면 1배)의 휴일근로수당까지 꼭 챙겨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법’이 노동절을 5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55조 2항 단서에 따라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더라도 노동절을 다른 날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하고 노동절에 일을 시켰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894, 2004.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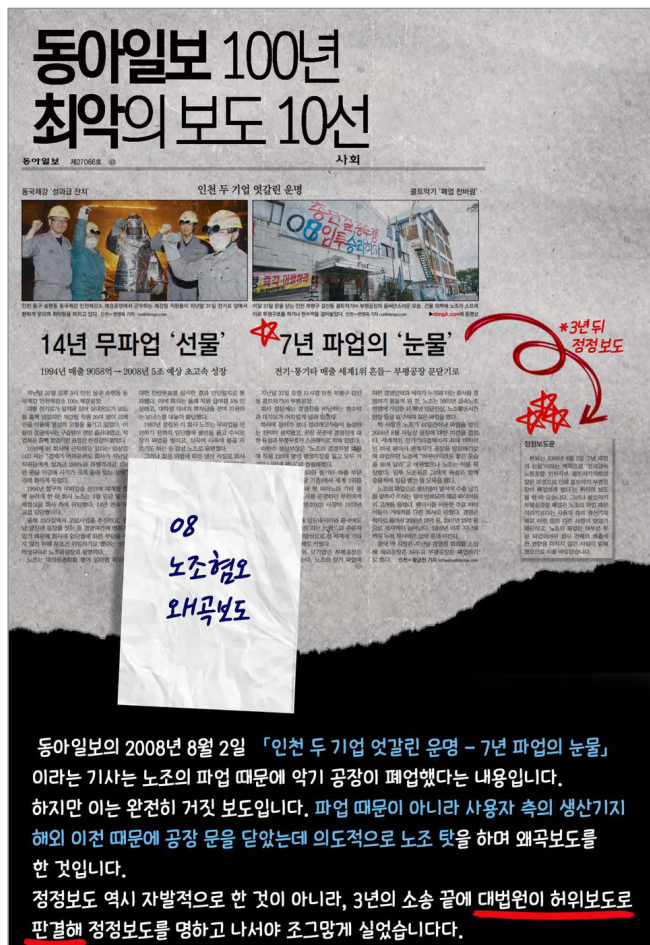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소정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 노동자가 노동절에 8시간 일하고, 노동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하면, 사용자는 다른 날 1일(8시간)이 아닌, 1.5일(12시간) 상당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문 2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근로계약서 조항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답 2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를 면제받는 날입니다.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본래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금속노조 법률원〉

(4면에서 계속)



그래서 이 두 신문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독재자에게,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재벌에게 항상 고분고분했고 그들의 이익을 앞장서 지켰습니다.

조선·동아일보는 자신의 정치색을 문화를 통해 숨겨왔습니다.

대중문화는 물론이고, 공연예술이나 미술, 영화와 관련한 정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는 조선·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힘을 잃던 TV조선이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으로 부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부터 스포츠와 문화예술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하는 신문이지만, 이것을 보고 조선·동아일보가 바뀌었다거나 대중적인 언론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동아일보는 이런 이벤트를 이용해 부끄러운 과거나 정치편향을 감추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조선·동아일보가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고 금속노조와 같은 민주노동조합을 ‘귀족노조’라고 부르며 공격하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사실 임금수준이 완성차회사와 비슷한 조선·동아일보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2018년 “임금인상은 애국”이라며 월급 올리기에 열을 올렸고, 조선일보 노조 조합원들은 2019년 “현재 임금으론 취재 전념 불가”하다며 회사에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라는 기사를 생산하던 조선·동아일보 기자들이 자기 연봉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여러분, 야비한 신문 조선·동아일보를 절대 믿지 마세요.

범죄 · 위험기업 포스코, 노동자 · 노조가 바꾼다

[소식] 포스코 바꾸는 노동자 · 시민 공동행동 활발하게 전개 중

3월 27일 새벽 3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 포스코 52차 주주총회 소집 공고 초청장을 받고 길을 나선 것이다. 포스코가 한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문제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동자가 직접 포스코에 쓴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

광양과 포항에서 포스코센터로 모였다

포스코를 향한 노동자의 소리는 서울 강남 한복판 포스코센터 정문에서 막혔다. 포스코가 동원한 사설 경비원, 갑자기 나타난 기동경찰은 포스코 주식보유자인 노동자들의 주주총회 입장을 막았다. 상법이 보장한 주주권 행사를 자본과 공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 차단한 것이다. 포스코센터 정문은 불법에 항의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거친 항의와 구호로 뒤덮였다.



3월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금속노조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노동자 · 시민의 의견을 포스코 경영방침으로 실천하는 것이 책임경영'이란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포스코는 노동자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여러 해 동안 막아왔다. 매년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의 주식보유 조합원들은 법률이 보장한 주주권 행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포스코는 사설 경비원을 동원해 주주총회 입장을 막았다. 주주의 주주총회 입장 차단이 불법임을 알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기 싫다는 것이다.

위험기업으로 낙인찍힌 포스코를 바꾸자는 목소리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으로 인해 포스코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불신이 높아지고 기업가치가 급격히 하락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노동자와 더불어 다양한 주장과 목소리가 포스코를 향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공적연금강화공동행동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주주총회 당일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금속노조와 함께 포스코의 대기오염 유발을 규탄했다. 저감장치 없는 상태에서 폭발사고에 의

한 다량의 일산화탄소 방출, 음용수 오염사건, 불법 폐기물 반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환경측정 조작 등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의 시민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한술 더 떠 부당 노동행위와 하청업체 납품 비리, 불공정거래를 저질러 사법, 행정당국에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방만 경영, 업무상 배임, 횡령 방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부실투자, 투자조작 등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포스코 계열사에서 열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모두가 하청노동자였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됐다.

포스코를 바꾸는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은 '시민기업'을 강조한다. 기업시민보고서를 발행해 지속 가능 경영, 윤리경영, 안전보건경영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환경부, 검찰, 경찰, 사법부, 지자체조차 포스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방통행과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포스코에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더욱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광양과 포항에서 새벽에 출발해, 포스코 주주총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최정우 회장의 경영부실, 중대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노동탄압,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대안을 마련하라"였다. 위험기업으로 낙인찍힌 포스코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 스스로 포스코로부터 권리와 안전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다.

포스코는 민주 노동조합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내려놔야 한다. 물론 포스코가 자발적으로 쉽게 노동조합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포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 포스코를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밖에 없다.

주주총회를 지나 노조할 권리와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시민의 공동행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활동으로 포스코의 윤리경영이 헛구호임을 증명하고, 포스코를 바꿀 것이다. 포스코의 변화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은 한국 사회를 바꾸는 실천을 더욱 다양하게 전개할 것이다.



코로나 19 틈타 노동자 건강규제 완화 시도하는 자들

[노동안전 칼럼] 사업주 단체 · 정부, 안전 위협 조치 즉각 중단해야

코로나 19는 한국 사회와 노동자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은 남의 일이 아니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연 근무와 각종 노동 시간 규제 완화로 노동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가 휩쓸고 간 현장에서 올해 3월까지 모두 155명의 노동자가 추락과 질식으로 사망했다.

코로나 19 틈타 규제 완화 요구하는 사업주 단체

최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주 단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사실상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 법은 수많은 시민의 삶을 파괴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화수소 누출과 같은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이 노동자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참사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

사업주 단체는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을 악용해 이들 법률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등록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이미 규제를 완화했다. 이마저 기업에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에 일본 수출입 규제조치에 따라 경제가 위기라며 안전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웠다. 그런데 모두가 힘든 이 시기, 다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들의 관심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시민이 아니다. 이들은 이번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 다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화수소 참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별 관심이 없다.

정부는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명분으로 유해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수용하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업주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다. 형식은 수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들 수출과 유해 화학물질 관련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방안에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 완화, 정기 검사 유예, 연 1t 미만 제조, 수입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 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을 포함해 사실상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기존 사회 합의를 뒤집었다. 사업주 단체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다.

화학물질 규제는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예를 들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장외영향평가를 작성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뒤에 최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장외영향평가는 기업체가 사용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 폭발,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

한 일련의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사업주가 제출한 장외영향평가는 정부 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결국, 심사 시간을 단축한다는 조치는 부실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일 사고가 벌어지면 피해는 노동자와 시민이 입는다. 정부는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해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은 코로나 19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갖게 된 것이다.

사업주 단체와 정부에 경고한다

안전보건 관련 규제를 만들 때의 과정을 생각해야 한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는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과 고통으로 만들었다. 수년에 걸쳐 사회 합의를 이뤘다. 이마저 사업주 단체와 보수 정치 집단에 의해 완전한 규제가 아닌 부분 규제에 그쳤다. 사업주 단체와 보수 정치인들은 수많은 이의 죽음과 고통에는 큰 관심이 없다. 여론의 눈치 속에 규제를 만들고,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업주 단체는 일본 수출에 문제가 된다고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완화를 관철했고, 이번 코로나 19 위기를 틈타 다시 규제를 풀어달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더 큰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업주 단체와 정부에 대한 노동자의 경고가 필요한 때다.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노동조합 만드니 참 좋다”

[금속노조 가입하자 22] 경주지부 엠에스정밀지회



결과는 사실상 100% 노조 가입이었다. 설립 총회 날,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합원 등 90여 명이 지회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했다. 총회 장소가 가득 찼다. 지회는 첫날부터 회사의 기를 꺾었다. 지회와 지부 간부들이 노동조합과 함께하자고 권유하며 미소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었다. 2018년 최저임금은 1,060원 올라 7,530원이 됐다. 지난 수년 동안 불과 200~300원대 인상 폭에 머물던 최저임금 16.4% 인상은 수십 년간 재벌들을 떠받쳐온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를 무너뜨릴 돌파구처럼 보였다. 재벌과 층견들은 곧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난리를 쳤다.

최저임금 오르자 임금삭감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엠에스정밀은 지게차 핵심부품인 트랜스미션과 구동축 등을 생산한다. 생산품의 60%는 현대건설에 납품하고 40%는 수출한다. 엠에스정밀은 2017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꼼수를 부렸다. 회사는 2018년부터 상여금 600%를 12개월로 나눠 기본 시급에 포함했다. 가족수당과 근속 수당을 없앴다. 2018년과 2019년 임금을 동결했다. 사실상 삭감이었다. 회사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앞두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는 말이 돌았다. 사내 외주화와 고임금자 해고 소문이 났다. 이우생 금속노조 경주지부 엠에스정밀지회장은 “회사는 현장 노동자들을 ‘멀티화’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필요에 따라 전환 배치해 외주화로 준 현장 인력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다. ‘멀티화’는 노동강도 강화를 의미할 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만들기 전에 관리자가 초시계를 들고 작업자 옆에 붙어 감시하고 압박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다.” 이우생 지회장은 “회사는 화장실 자주 갔다고 시말서를 쓰라 했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조·반장들을 모아 조기출근과 강제 잔업을 일방 통보하던 노사협의회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상여금과 수당을 없애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회사의 도발 앞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절박한 요구가 됐다. 노조 설립 당시 발주 물량이 줄었다. 잔업과 특근 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줄었다. 회사는 공공연하게 퇴사를 압박했다. 노동자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욱 높아졌다. 노동자들은 6개월 동안 준비해 2019년 6월 19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엠에스정밀지회를 세웠다. 사측은 모기업 명성공업이 자금을 끊어 회사가 망한다는 소문을 냈다. 명성공업

은 엠에스정밀 대표이사의 장인이 주인이다. 엠에스정밀 자본 100%를 투자했다. 노조 설립 시기에 관한 고민으로 두 달 정도 준비를 중단했던 적이 있었다. 이우생 지회장은 노조를 세우지 못하면 퇴사하려 했다고 한다. 조합원 조직 당시 직접 생산부서보다 간접부서 조직에 더 힘을 썼다. 직접 생산부서는 임금과 노동강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 조직에 큰 걱정이 없었지만, 간접부서가 노조에 가입할지 우려했다. 결과는 사실상 100% 노조 가입이었다. 설립 총회 날,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합원 등 90여 명이 지회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했다. 총회 장소가 가득 찼다. 지회는 첫날부터 회사의 기를 꺾었다.

산재? 실금은 밥 한 끼, 골절은 공장처리

사측은 총회 열흘 뒤 관리자 세 명을 중심으로 복수노조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조·반장들을 중심으로 어용노조를 만들려 했다. 생산을 독려한다는 명분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 이우생 지회장과 지회 간부들은 어용노조 핵심 관리자의 책상을 두 번 들어냈다. 회사는 결국 복수노조를 포기했다. 노조 설립 전 회사 식당은 명성공업 대표의 친척이 운영했다. 이우생 지회장은 “당시 식당 밥은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했다. 회사는 공장 이전하면 식당 운영 업체를 바꿀 것이라며 식사 질 개선을 미뤘다. 지회는 설립 뒤 제일 먼저 식당 업체를 새로 선정해 식사 질부터 개선했다.

이어 작업 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우생 지회장은 산업안전이 “최악이었다”라고 했다. “일하다 다쳤다고 산재처리를 한 사례가 없었다. 노조가 생기고 나서야 산재처리를 하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작업 현장에 협착 사고가 잦았다. 뼈에 실금이 가는 정도는 조·반장이 밥 한 끼 사주고 말았다. 다음 날 출근해 일해야 했다. 회사는 골절 정도는 돼야 공장처리를 해줬다. 지회는 첫 단체협약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행을 명시하고 작업 환경 개선에 나섰다. 사측이 지금은 작업복과 안전화, 안전보호구 등을 주고 있다. 현재도 생산 현장 안은 유해가스와 장비가 내뿜는 열기로 가득하다. 특히 여름철에 기계장비가 내뿜는 열로 현장은 바깥보다 더 뜨겁다. 가공반은 환기 시설이 없어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 이우생 지회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현장에 차츰 환기와 냉·난방 시설,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다”라며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악명높은 조립반도 강도를 낮춰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회는 여성 노동자를 위한 전용 휴게실과 함께 제대로 휴게실을 만들었다. 이우생 지회장은 “이제야 화장실에 온수가 나온다”라며 얹은 미소를 지었다. 인간과 노동자로서 존엄과 작업환경 개선에 기뻐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에 지회장과 간부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지회는 올해 금속노조 중앙교섭 시작과 함께 지회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올해 교섭의 초점은 수당과 상여금 신설이다. 노조를 만들고 나니 삶이 바뀐듯하냐는 질문에 이우생 지회장은 “노동조합을 만드니 좋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우생 지회장은 “노조를 만드니 권리가 생겼다. 하지만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 함께 생겼다”라며 “노동조합이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단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